항해 길 오른 김민석호 민주 당내 갈등 봉합, 중요 과제로

8·17 전대 과정서 상처 커… 새 지도부, 경쟁세력 포용하고 하나의 지도부로 통합해야
이 대통령 역할도 중요… 당내 다양한 목소리 포용이 향후 여권의 안정적인 운영 좌우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당원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로 전개됐다.

특히 호남 경선이 전체 판세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호남에서의 득표가 당대표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실제 호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6만3,360표 차라는 상당한 격차를 벌리면서 승기를 잡았고, 이후 수도권 경선에서도 접전을 이어간 끝에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승리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민석 대표 역시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원과 당의 독자적인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현안을 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야당과의 충돌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소 취소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국민 여론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조건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과 정치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집권 여당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지도부 구성 역시 김 대표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등 이른바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정치적 색깔과 노선 차이가 지도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른 최민희 의원은 당내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인 만큼 향후 최고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김 대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가 관심사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낙선한 것은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 구성에는 일정한 제동이 걸린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김민석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과 계파 간 대립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이어졌던 만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순간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당대표로서 경쟁자들을 포용하고 하나의 지도부로 통합해야 한다.

정청래 후보의 낙선으로 당내 정치적 입지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김민석 후보와 연대하며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송영길 후보는 오히려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김 대표와 정청래 후보의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됐으며, 최종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입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크게 표출된 만큼 대통령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폭넓게 포용하느냐가 향후 여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김민석 신임 대표를 비롯해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이른 시일 내에 초청해 만찬을 갖고 당내 화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내 균열을 조기에 봉합하고 집권여당의 단결을 이끌어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 한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를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정치적 시험대였다.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또 경선 과정에서 깊어진 계파 갈등을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민주당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헌화하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민주당 집단지성의 승리"

김관영 전 전북자치도지사, 8·17 전당대회 관련
"새 지도부가 힘 모아 국가적 과제 잘 풀어나가길"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평가하며 "민주당 집단지성의 승리"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가 끝났다"며 "김민석 대표님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지도부가 힘을 모아 국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민심을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민주당 ABC 플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먹고사는 민생정치와 생활의 정치, 덧셈정치와 확장정치, 유능한 정치와 민생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김 대표가 밝힌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는 당 혁신 비전에 대해서도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님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이 책무를 다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 마음을 잇는 '민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김민석 대표에게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강경숙 후보 찬반투표로 위원장 선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도당위원장 선거에 강경숙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서 찬반투표를 통해 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을 공고하고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후보자 등록 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강경숙 후보와 정도상 전 전북도당 위원장 등 2명이 등록하면서 경선이 예정됐으나, 정도상 후보가 지난 17일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됐다.

정도상 후보는 사퇴 입장문을 통해 "작은 당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파벌로 나뉘어 다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강경숙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북도당 소속 주권당원 투표 80%와 전국대의원 투표 20%를 반영해 결과를 산출한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는 22일 오후 4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사무실에서 열린다. 전북도당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신임 도당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국힘, 5·18 앞에서 왜 윤리위가 멈추나?"

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사 왜곡 논란' 이진숙 의원 징계 촉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자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는 강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5·18 앞에서는 왜 윤리위원회가 멈추느냐"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문제 삼았다.

해당 포럼은 지난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5·18이 '소요 사태'로 규정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둔됐다"며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해당 행사를 학술행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인이 개최하는 행사가 단순한 학술행사일 수 있느냐"며 "단상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항의는 참다못한 객석에서만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는 학술 토론회가 아니라 역사왜곡 발표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지원 의원, 연계연금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 법안 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5조를 개정해 연계 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금주·문대림·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24일부터 10일간 개최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설경민)는 18일 회의를 열어 제286회 임시회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회 운영과 내부 제도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이들 안건은 오는 8월 24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15건(의원발의 8건 포함) △건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공모사업 보고 1건이다.

설경민 위원장은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현안업무보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상정 안건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